

3대가 함께 걸어도 좋다...행복한 '힐링 숲길'

새 힐링 명소로 떠오른 영광 물무산 행복숲

물무산 행복숲은 돌레길 너비가 2m가 넘어 탐방객들이 나란히 이야기하며 걸을 수 있게 조성돼 있다. 3대가 나란히 걸어도 돌레길 폭이 남을 정도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가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다. 물무산 행복숲은 지난해에만 10만여명이 다녀갔고 올해도 3만여명이 찾아 새로운 힐링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 평지형 돌레길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물무산 행복숲은 영광읍과 묘량면 입야 44필지 211ha의 산림에 조성됐다. 2016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 개장했다. 물무산은 영광읍 시가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이다. 물무산의 최고 높이는 256m로 낮은 편이다. 군민들은 행복숲이 조성되면서 언제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됐다.

행복숲에는 숲속 돌레길 10km와 질퍽질퍽한 숲속 맨발 황톳길 2km, 유아숲체험원, 물놀이장, 편백명상원, 소나무숲예술원, 가족명상원, 하늘공원이 자리해 있다. 물무산 행복숲 돌레길의 가장 큰 특징은 경사가 없다는 점이다. 산을 오르는 등산보다 힘들지 않아 3-4시간을 걸어도 부담이 없다.

◆ 유아숲 체험원과 물놀이장 '맘껏 뛰어 놀아요'

짚라인, 나무미로와 각종 나무로 만든 다양한 놀이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유아숲 체험원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이 곧 놀이터'를 알려주는 곳으로,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이다. 체험원 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어 신청하면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유아숲 체험원 옆 물놀이장 물은 계곡 물이 아닌 지하 180m에서 끌어올린 암반수를 사용한다. 암반수는 먹는 물 기준 47개 검사항목에서 합격을 받은 깨끗한 물이다.

평지형 돌레길 누구나 쉽게 이용
편백·소나무숲서 산림욕·명상
맨발 황톳길 걸으며 건강 키우고
유아숲체험원·물놀이장도 즐겨

수심은 50cm로 얕아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없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편백나무 숲과 소나무 숲에서 명상과 힐링

행복숲에는 자연과 호흡하고 나를 돌아보는 명상 공간이 있다. 편백명상원과 소나무숲 예술원, 가족명상원이 운영된다.

편백명상원은 수령 20년 이상의 편백나무 3500여 그루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산림욕과 명상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동안 사람이 찾지 않았던 2ha의 노송 군락지는 소나무숲 예술원으로 꾸며졌다. 이곳에는 맥문동이 군락을 이뤄 8월과 9월이면 보라빛 꽃물결로 장관을 연출한다.

물무산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서 쉬길 원한다면 가족명상원이 제격이다. 입구를 기준으로 유아숲 체험원 반대편에 있는 이곳은 100평 정도의 잔디밭이 펼쳐져 있다.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물 위에 올라 누울 수도 있다.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주는 조용한 숲 속, 흔들거리느 그물망 위에서 즐기는 휴식은 편안함 속에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 질퍽질퍽 맨발 황톳길 흙 기운 느끼며 건강 '업'

흥곡저수지에서 물무산 정상으로 가다 보면 맨발황톳길이 나온다. 황톳길 길이는 숲을 따라 2km에 달하며 질퍽질퍽한



평지형 돌레길을 조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영광 물무산 행복숲이 산림욕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힐링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영광군 제공>

황톳길 구간 0.6km, 마른 황톳길 구간 1.4km로 2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황톳길에 이르면 신발과 양말을 벗어야 한다. 맨발로 걸으면서 흙의 기운을 바로 느낄 수 있다.

황톳길을 걸으면 처음엔 미끌미끌 이상한 기분이 들지만, 이내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촉감에 상쾌해진다.

황토는 천연토로 몸에 좋은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다. 황톳길을 걷고 나면 혈액순환과 소화기능 개선, 두통·피로 해소 등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

황톳길을 걷고 나면 발에 묻은 황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길의 시작점과 중간 지점, 끝 지점에 모두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있어 등산화와 양말을 벗고 마음껏 걸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칠산노을 치유숲길, 남도명품길로 만든다



영광군 관계자들이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에서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현장심사를 받고 있다.

공모사업 선정...14억 투입 조성

영광의 칠산노을 치유숲길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관하는 '남도명품길 3단계' 조성 공모사업에 지난달 신청서를 접수한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이 최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도비 7억 원·군비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숲길은 백수해안도로 변의 건강 365계단 인근에 추진 중인 절벽정원과 연계해 조성된다.

백수읍 대신리 대초미 마을에서 '정유재'란 열부 순절지'까지의 동백숲길 6.2km 구

간을 먼저 연결한다.

이어 대전리 묘동마을까지 10.5km를 개설한 뒤 노을 감상 길까지 총 16.7km의 숲길을 자연 그대로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명품길 조성'은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보 체험여행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춰 추진하는 사업이다.

남도의 역사·문화·인물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숲길과 연계해 자연친화적인 길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칠산노을 치유숲길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최고의 도시민 힐링 숲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유아숲 체험원 체험활동



암반수 물놀이장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NH농협손해보험